

여성 한복의 형태 및 장식의 변화 분석
-결혼사진에 나타난 신랑, 신부 어머니 복식을 중심으로-
Analysis of Attires and Decorative Features in Formal Context
-Emphasis on Formal Attires of Bride and Bridegroom's Mothers in
Families' Wedding photographs-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김재숙 · 이혜숙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Jae-Sook Kim · Hae-Sook Lee

(2001. 11. 26 접수)

Abstract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analyze the changes in formal attires and decorative features of middle age Korean women during the last half of 20th century and to find out any significant differences in formal attires according to periods. The study was a documentary research,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344 family wedding photographs by convenient sampling. The statistics used were content analysis, frequency and a time series analysis,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Four schematic clusters of formal attire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skirt(chima) length and width, jacket(jogori) length, motifs and decorative features; simple classic, decorative classic, fashionable, and extravagant fashionable. Simple classic attires were popular until 1960s, the decorative classics were appeared from late 1960s to 1970s, fashionable attires were introduced from the late 1970s and the attires became more luxurious and extravagant until 2000. 2. Color symbolism in couples mothers' attires according to the couples gender - pink or red for the bride's mother and blue or green for groom's mother - was introduced from the late 1970s, and reached the maximum level by the early 1980s but slowly disappeared after the late 1980s. 3. The complete fashion cycle did not exist in the formal attires' change, however, since the period of data were ranged from 1943 to 2000, the 57 years period may not long enough to measure a complete fashion cycle.

Key words: formal attire, Korean traditional dress, color symbolism, wedding photograph;
정장의복, 한복, 색 상징성, 결혼사진

I. 서론

복식은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의사전

달 역할을 하며 맥락 내에서 그 상징의 의미가 주어진다. 결혼 또는 상(喪)과 같은 상황에서 착용하는 의복은 다른 일반적인 의복에 비해 규범적 의미가 강한 것으로 복식만으로도 사람에게 그 상황을 전달하게 된다. 특히, 결혼은 평생동안 가장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로 신랑, 신부는 물론 하객들까지도 의복과 장식에서

※ 본 논문은 2000학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최고의 격식을 갖추게 되므로 예복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복식체계는 거의 모든 경우 서양의복의 체계를 따르고 있어 스트리트 형태의 정장이 일상생활에서의 의복의 격식차림으로 대표되고 있다. 그러나 의식에서는 서양복과 전통복인 한복이 혼용되고 있으므로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야 할 상황에서 어떤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 격식차림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예복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국의 혼례문화에서는 결혼 사진이 필수적이며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보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자료에 대한 분석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예복에 대한 변천과정을 실제의 결혼 사진을 사용하여 정장복식의 형태와 장식에 대한 양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는 예복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결혼식에 나타난 정장복식의 형태와 장식적 변화를 앞으로 문화적 맥락에서 복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현대인에게 적절한 의복규범을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예복에 대한 변화 양상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1940년 이후의 결혼식 사진을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장복식의 장식적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식에서 양가 어머니의 복식을 형태간 상관관을 구하고 색과 무늬에 따른 장식의 변화를 분석하여 범주화하고 도식화한다. 둘째, 결혼 당시의 사회적 상황, 패션 트렌드와 의복 장식의 관련성을 조사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한국의 사회적 배경

20세기 우리 나라는 사회·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현대화되어왔다. 1945년 해방이 되기 전까지는 일제의 식민지로 주권을 상실하였으나 타의에 의한 근대화화가 시작되었다. 해방 후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과 변화를 겪어왔으며 특히 1950년 한국전쟁은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어 어려

움을 가중시켰으나 UN의 원조, 외국 문화의 유입으로 빠르게 서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1960년 후반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경제개발계획은 우리사회를 산업화, 공업화, 현대화로 바꾸어 주었다. 경제발전이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여성인구의 취업, 생활양식의 변화, 핵가족제도 및 레저의 확대보급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 이후 생활양식은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는 국제화, 세계화의 기틀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개방화 정책과 해외여행의 자유화 정책과 더불어 고급소비지향을 보이고 있다.

2. 복식의 변천

복식의 변천과정을 구미에서는 이미 양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Richardson과 Kroeber(1940), Carman(1966) 등은 과거 패션 잡지 등의 유행의복을 분석하여 유행주기를 분석하였으며 또한 미래의 유행을 예측할 수 있는 공식(Carmen formular)을 제시하였다.

한편 한국여성 복식의 변천은 구한말 이후 양장의 채용과 더불어 변화의 양상을 보이게 되었고 광복 이후(1945년) 한국여성복식에서 가장 큰 변화는 양장 착용 인구의 증가로서 1960년을 기점으로 양장 착용 인구가 한복 착용 인구보다 증가하게 되었다(유수경, 1991). 여성 복식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전양진, 1999; 황선진, 1992; 유수경, 1991)에서 전통한복은 60년대를 기점으로 서양복에 밀려 일상복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예복으로서 착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현대 한국인의 한복 착용은 자신 또는 가족이나 집안의 결혼식 및 회갑연과 같은 특별한 TPO를 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이주연 등, 2001).

한복의 변천과 관련하여 진미희(1990)는 1950년대 이후 1990년까지의 한복 변천을 실물(저고리)과 잡지 등에 나타난 사진(착용된 모습 분석)으로 연대별 분석을 하였다. 연대별 한복 변화 및 특징을 보면 1950년대 저고리 길이가 길며 치마는 발목이 보일 정도로 짧게 착용하였으며 1960년대 초기에는 50년대와 비슷하였으나 1967년 이후부터 저고리가 단소화되면서 치마의 길이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어지고 풍성해졌다. 장

식에서도 1965년 이후부터 금박과 자수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1970년대는 1975년부터 풍부한 A라인의 사다리꼴 실루엣으로 치마의 볼륨을 강조하였고 길이는 신발을 가릴 정도로 길어졌다. 또한 장식의 과잉현상으로 자수, 금박, 나염, 그림의 방법으로 장식이 없는 부위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었다. 1980년대는 저고리 길이는 극히 단소화되고 치마의 길이는 바닥에 깔릴 정도로 길며 치마폭의 확대로 풍성함을 더해 주고 있으며 장식에서는 1986년부터 모자이크, 누빔, 애플리케, 그림찍기 등 새로운 방법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1987년부터는 전통한복으로 복고하는 경향을 보인다. 김찬주 등(2001)은 20세기 초(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와 20세기말의 전통한복의 변화를 비교하여 한복 유형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류 범주는 20세기 초의 한복을 기준으로 형태 변형과 장식 정도로 현대 한복을 분류하여 범주화하였으며 형태적인 면에서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복의 전통성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으나 한복 유형과 장식에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며 예복의 성격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 자료분석 방법으로 1943년부터 2000년까지의 결혼식의 가족사진 344장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한국의 일반가정에서 소장하고 있는 결혼식의 가족 사진이므로 착용자가 실제로 착용한 의복을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자료의 내적, 외적 타당성이 신문, 잡지 등의 내용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분석방법은 내용분석, 백분율, 시계열 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시대적 배경, 결혼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결혼년월일, 결혼장소, 신랑, 신부의 직업을 알아본다.

2) 복식의 장식정도는 신랑, 신부 어머니의 복식에서 의복유형, 의복형태, 의복색, 의복의 상하배색, 의복에 나타난 무늬를 중심으로 내용 분석한다.

3) 복식의 장식적 변화는 내용분석된 장식 정도를 5년 단위로 시계열 분석으로 분석하여 변화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한다.

4) 의복형태와 장식적 특징으로 격식차림의 수준을 범주화하고 의복을 도식화한다.

IV. 결과 및 논의

1. 자료의 특성

본 연구의 자료는 1943년부터 2000년까지의 결혼식 가족 사진이었으며, 각 연대별 자료의 수는 1940년대 1장, 1950년대 1장, 1960년대 11장, 1970년대 147장, 1980년대 77장, 1990년대 107장이었다. 결혼과 관련한 사진을 수집한 결과 1970년 이전의 결혼사진은 결혼식이 끝난 후 신랑, 신부 두 사람만이 기념촬영을 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결혼하는 계절은 여름(7.3%)을 제외한 봄(33.7%), 겨울(31.7%), 가을(22.1%) 중 어느 계절이든 관계없이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장소는 분석자료의 83.1%가 결혼식을 위해 만들어진 전문장소인 예식장에서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혼문화의 획일화로 사진촬영에 있어서도 기념사진의 동질화를 가져왔으며 양가 어머니의 분석을 용이하게 해 준다.

신랑, 신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랑직업과 신부직업을 조사 분석한 결과, 신랑의 직업은 화이트칼라(37.5%), 자영업(3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부의 직업은 68%가 무직으로 나타나 여성의 사회진출이 남성과는 달리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2. 양가 어머니의 의복과 장식적 특징에 대한 평가

1) 양가 어머니 의복의 형태적 특징

(1) 의복유형

의복유형은 서양복과 전통복으로 분류하였다. 결혼식에서 주빈이 되는 양가 어머니의 의복유형은 본 연구에서 다룬 전 시기에 걸쳐 거의 모든 어머니들이 한복을 착용(97.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일상복이 서양복으로 변하였으나 결혼과 같은 특별한 의식을 위한 여자의 예복으로는 아직까지도 한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현 등(2001)의 연구에서 현대 한국인들이 전통한복을 착용하기에

적합한 TPO로 자신 또는 가족이나 집안의 결혼식 및 회갑연 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예복에 대한 태도가 실제 의복 착용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복변천에 관한 선행연구(진미희 1990, 김찬주 등 2001)에서 1960년대 이후 한복이 예복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서양복은 수트형태의 의복이 착용되었으며 특별한 장식이나 파티복과 같이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없었다.

(2) 의복형태

양가 어머니의 의복유형이 한복이었으므로 의복형태는 착용한 한복의 상의길이, 하의길이, 하의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① 상의 길이

상의 길이는 네 개의 수준으로 나누었다 : level 1은 가슴둘레선 정도, level 2는 밑가슴둘레선에서 허리선 위, level 3은 허리선, 그리고 level 4는 허리선 아래로 정하였다. 상의 길이는 Fig. 1에서와 같이 60년대 초부터 허리선 위의 길이로 짧아지기 시작하였다. 70년대 후에는 매우 짧아지기 시작하여 특히 90년대는 상의 길이가 짧은 것이 선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진미희의 연구(1990)에서 저고리의 실물 치수가 50년대 이후 90년대까지 길이가 짧아진 것과 일치한다.

② 하의 길이

하의 길이는 네 개의 수준으로 나누었다 : level 1은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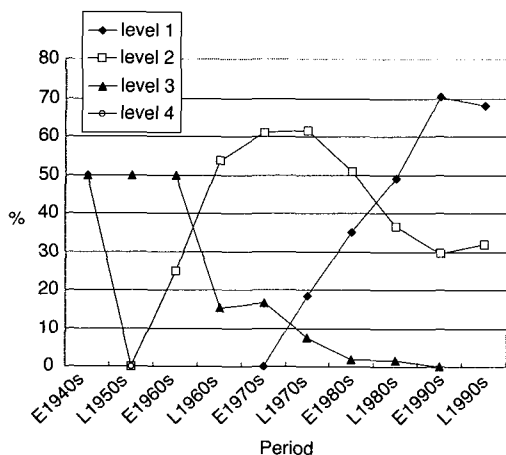


Fig. 1. A time series analysis of jogori(jacket) length.

목 위, level 2는 발목길이, level 3- 신발 앞이 약간 보이는 것이며, level 4는 가장 긴 바닥길이이었다. 하의 길이는 Fig. 2에서와 같이 50년대 후까지는 짧았고 60년대 초부터 70년대 초까지는 짧거나 약간 길어졌다. 또한 70년대 후부터는 짧은 것에서 긴 것까지 모든 길이가 혼재되어 보이나 90년대부터는 하의를 길게 입기 시작하여 90년대 후에는 거의 길게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미희의 연구(1990)에서는 1967년부터 치마의 길이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어지다가 1969년에는 바닥에 끌릴 정도라는 결과와 다른 것으로 선행연구는 치마 분석을 여성지에 발표된 사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며 실제 착용은 활동에 불편하지 않도록 신발이 약간 보이는 정도의 길이가 대부분이었다.

③ 하의 폭

하의 폭은 세 개의 수준으로 나누었다: level 1은 좁은 것, level 2는 보통이며, level 3은 넓은 것이었다.

하의 폭은 Fig. 3에서와 같이 70년대 초까지는 폭이 좁아 거의 직선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70년대 후부터 단을 약간 넓혀 A라인을 이루는 것이 등장하여 80년대 후에는 폭을 넓힌 것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또한 90년대가 되면서 좁은 것은 거의 사라지고 A라인이거나 상·하부가 모두 넓혀진 형태의 확장된 것을 착용하고 있다.

④ 의복형태 요소간 상관관계

상의길이, 하의길이, 하의폭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하였다. Table. 1과 같이 상의 길이와 하의폭은 부적관계를 보여 상의 길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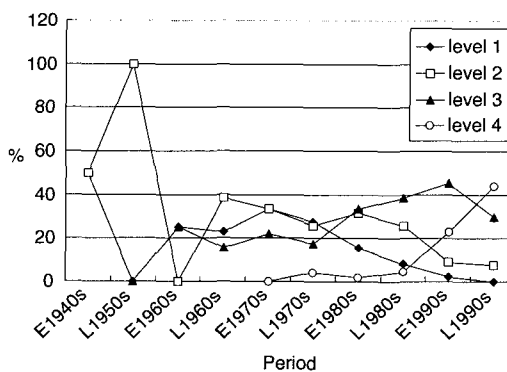


Fig. 2. A time series analysis of chima(skirt) leng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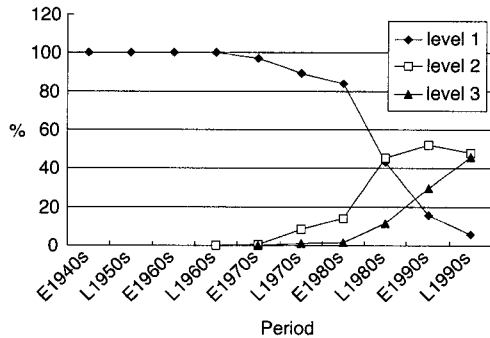


Fig. 3. A time series analysis of chima(skirt) width.

가 짧을수록 하의폭이 넓어졌으며, 하의길이와 하의 폭은 정적관계를 보여 하의길이 길수록 하의폭이 넓어졌다. 즉, 하의폭이 넓어질수록 상의길이는 짧고 하의길이는 길어지는 실루엣을 지닌다. 그러나 상의 길이와 하의길이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상의길이는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급격히 짧아졌으나 하의길이와 하의폭은 시대에 따라 점진적인 변화를 보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Table 1. Correlation among jogori length, chima length and chima width

	jogori length	chima length	chima width
jogori length	1.000		
chima length	-0.080	1.000	
chima width	-0.218***	0.206***	1.000

***p<.001

2) 양가 어머니 의복의 장식적 특징

한복은 의복의 형태적인 면뿐만 아니라 장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서양복과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색과 무늬의 사용으로 장식성을 더함을 알 수 있다.

(1) 의복의 상하배색

상의와 하의의 배색은 다섯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 level 1은 상하동색, level 2는 유사배색, level 3a는 상하 배색, level 3b는 상하동색에 깃, 끝동, 고름부분에 배색 된 것이며, level 4는 상하배색에 깃, 끝동, 고름부분에 배색된 것이었다.

상하배색은 Fig. 4에서와 같이 60년대 초까지는 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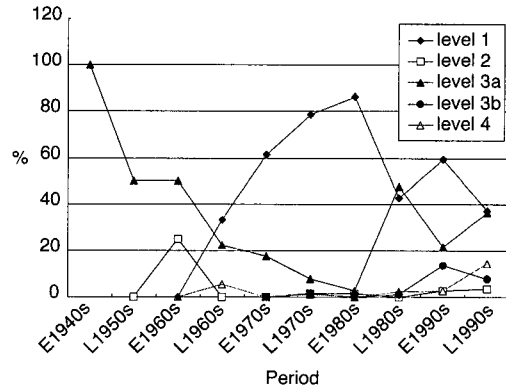


Fig. 4. The analysis of color combinations in ensembles.

와 하의를 다른 색으로 조합하여 착용하였으나 60년대 후부터 상의와 하의를 동일한 색으로 조합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여 70년대 초부터 80년대 초까지 상의와 하의가 다른 색으로 조합된 것보다 동일한 색으로 조합된 것이 월등히 많아졌다. 90년대 초부터 상의와 하의가 다른 색으로 조합될 뿐만 아니라 상의의 일부분(깃, 고름, 끝동)에 다른 색을 조합하여 한 의복에 여러 색이 동시에 표현되고 있다. 즉, 고증을 통하여 한복의 다양한 배색에 현대성을 가미하여 디자인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김찬주 등의 연구(2001)에서 20세기 초와 비교해 20세기 말 한복 유형이 비교적 전통성을 잘 유지하면서도 다양성을 보인 것이 색 부분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의복의 무늬

한복에 무늬를 표현하는 방법은 문직물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그림을 그려 넣거나 자수와 금박 등으로 직물에 무늬를 더하는 방법이 있다.

무늬 사용은 다섯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 level 1은 무늬 없음, level 2a는 깃, 고름, 끝동에 무늬, level 2b- 고름, 소매, 치마에 무늬, level 3은 문직물, level 4는 전체 무늬(금박, 자수, 그림 등)로 정하였다.

의복의 무늬는 Fig. 5에서와 같이 60년대 초까지는 문직물을 사용하여 제작된 의복을 착용하였고 60년대 후부터는 무늬가 없는 것과 무늬가 있는 것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70년대 후부터는 의복의 일부분에 무늬를 더하여 장식하였으며 이것은 80년대까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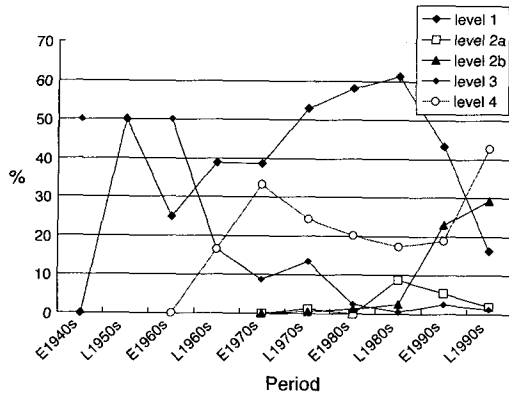


Fig. 5. The analysis of motifs in ensembles.

되어 의복의 일부분(고름, 깃, 끝동)에 무늬가 있는 반면 90년대에는 무늬의 사용이 넓은 범위로 옮겨져, 깃, 고름, 소매, 치마 등 의복 전체에 무늬가 있어 매우 화려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진미희 연구(1990)결과와는 약간 다른 것으로 70년대 장식의 과잉현상이 있었다고 하나 실제 양가 어머니가 착용한 의복에서의 장식은 양이나 부위에서 적게 나타나 그 당시의 여성지에 제시된 것보다 점잖은 의복을 착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우선 여성지에 제시한 것과 실제 착용한 의복의 차이가 있을 것이며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유행 한복과 중년 이후의 여성이 선호하고 착용한 것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었다.

상의와 하의의 배색, 무늬정도로 살펴본 장식적 특징은 60년대 초까지는 문직물로 상·하의를 다른 색으로 조합시키는 정도에서 70년대 후까지도 깃, 고름, 끝동에 배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부터 의복에 사용된 색의 양이나 무늬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90년대에는 다른 시대에 비해 다양한 배색과 많은 양의 무늬 표현으로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이는 70년대 칼라사진, 80년대 칼라TV의 보급으로 색에 대한 관심과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한복이 60년대까지는 예복만이 아니라 일상복으로도 착용함으로써 특별히 예복으로 구분되지 않고 사용된 반면 70년대부터는 서서히 예복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기 시작하여 화려함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한복의 형태와 장식의 특징을 연대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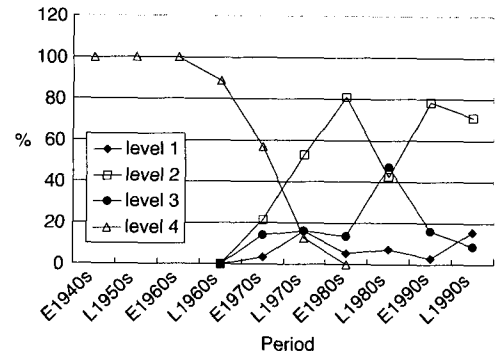


Fig. 6. The analysis of ensemble colors in bride's mother.

분석한 결과 형태적인 면에서는 전통적인 선과 실루엣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사용되는 색과 배색, 무늬의 표현방법과 양은 전통적인 것에 새로운 것을 더하여 디자인의 다양화를 주는 요인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양가 어머니의 의복색

결혼사진에서 60년대까지는 흑백사진으로 색의 분석이 어려웠고 70년대부터 칼라사진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975년까지는 흑백사진이 많았으나 1976년 이후 칼라사진의 비율이 높아졌고 1981년 이후에는 모두 칼라사진이었다.

의복색은 네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level 1은 녹색·파랑계열, level 2는 분홍·빨강계열, level 3은 기타, level 4는 흑백사진을 정하였다.

(1) 신부어머니의 의복색

신부어머니의 의복색은 전체적으로 분홍·빨강계열(56.9%)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6에서와 같이 70년대 초까지는 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착용한 것으로 보이나 70년대 후부터 신랑, 신부의 성별에 따른 상징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분홍·빨강계열의 의복착용이 증가하여 80년대 초에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80년대 후 분홍·빨강의 비율과 다른 색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의복색의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듯 하였다가 90년대 접어들면서 다시 분홍·빨강계열의 착용이 다른 색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신랑 어머니의 의복색

신랑 어머니의 의복색은 전체적으로 녹색·파랑계열이 46.1%, 기타 20.4%, 분홍·빨강계열이 16.3%로 나타났다. Fig 7에서와 같이 70년대 초까지는 신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여러 색을 착용한 것으로 보이나 70년대 후 녹색·파랑계열이 많아지면서 80년대 초에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80년대 후 녹색·파랑이나 분홍·빨강을 제외한 색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으나 90년대 접어들면서 다시 녹색·파랑계열의 착용이 다른 색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가 어머니의 의복색은 70년대 후부터 신랑, 신부의 성별에 따라 색상이 구분되기 시작하여 80년대 초 극단적인 경향을 보였다. 80년대 후 이런 색에 의한 구분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가 90년대 다시 신랑, 신부의 성별에 의한 한복색의 구분이 재등장하였다.

즉, 분홍은 여자를 위한 것이고 파랑은 남자를 위한 것이라는 서양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내려온 색의 상징성(Fehrman, 2000)이 결혼의식의 서구화와 더불어 결혼 당사자의 성에 따라 신부 어머니는 분홍·빨강계열의 의복을 착용하고 신랑 어머니는 녹색·파랑계열의 의복을 착용하도록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80년대 후의 경우는 예외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한국에서 개최된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의 공식석상에서 행사진행요원들이 착용했던 한복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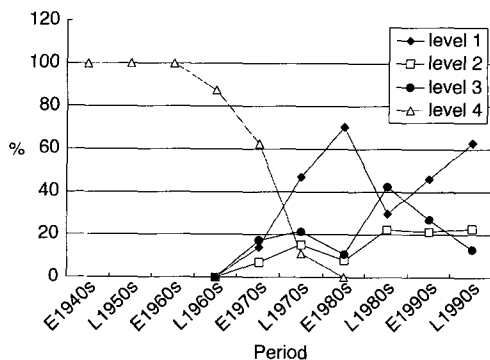


Fig. 7. The analysis of ensemble colors in groom's mother.

4) 양가 어머니 의복의 범주화

양가 어머니 의복의 형태적, 장식적 특징을 종합 분석하여 그 특징에 따라 네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Table 2-Table 5는 각 범주 유형의 특징과 그에 따른 도식화이다.

(1) 범주 유형 1: 단순한 기본형(Table 2)

의복형태는 상의 길이가 길고 하의 길이는 짧으며 하의 폭은 좁다. 장식정도는 상의와 하의가 동일한 색이나 다른 색으로 조합되고 무늬는 문직물을 사용한 것이다. 시대적으로는 1940년대 초부터 1960년대 후까지 주로 착용되었다.

(2) 범주 유형 2: 장식적인 전통형(Table 3)

의복형태는 상의 길이가 범주 유형1에 비해 짧아지고 하의 길이는 약간 길어졌으며 하의 폭은 좁거나 약간 넓어졌다. 장식정도는 상의와 하의가 동일한 색에 깃, 고름, 끝동에 다른 색을 조합한 것이다. 1960년대 후부터 1970년대 후까지 일부 착용된 것으로 장식의 양은 극히 적다.

(3) 범주 유형 3: 현대적인 형(Table 4)

의복형태는 상의 길이가 짧고 하의 길이는 길며 하의 폭은 A라인으로 퍼진 것이나 넓은 것이다. 장식정도는 상의와 하의가 동일하거나 다른 색으로 조합된 것

Table 2. Category 1 : Simple Ba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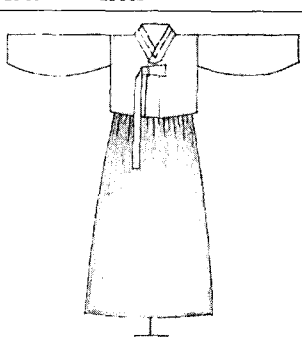
Characteristics	Jogori length - level 4 Chima length - level 1 Chima width - level 1 Decorative feature - level 1 Jogori and chima colors; same color or different color
Period	E. 1940s ~ L. 1960s
Schema	

Table 3. Category 2 : Decorative Classic


Characteristics	Jogori length - level 3 Chima length - level 2 Chima width - level 2 Decorative feature - level 2 Neck band, ribbon, end sleeves; different color
Period	E. 1960s ~ L. 1970s
Schema	

Table 5. Category 4 : Extravagant Mod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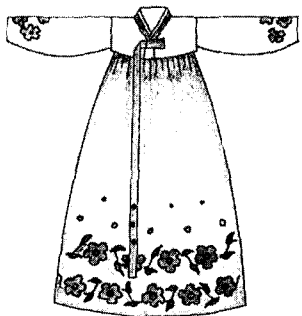

Characteristics	Jogori length - level 1 Chima length - level 4 Chima width - level 3 Decorative feature - level 4 Neck band, ribbon, end sleeves; gold-gilt, embroidery, painting
Period	E. 1990s ~ L. 1990s
Schema	

Table 4. Category 3 : Modern

Characteristics	Jogori length - level 1 or level 2 Chima length - level 3 Chima width - level 3 Decorative feature - level 3 Neck band, ribbon, end sleeves; same color or/and small motifs
Period	E. 1970s ~ L. 1990s
Schema	

이고 무늬도 적은 것이다. 70년대 후부터 90년대 초까지 주로 착용되었으며 특히 80년대 후(1986-1990)의 시기에는 다른 시기에 비해 상하배색의 비율이 높았다.

(4) 범주 유형 4: 장식적이며 현대적인 형(Table 5)

의복의 형태는 범주 유형 3에 하의 길이가 바닥 길이로 긴 것이다. 장식정도는 상의와 하의가 다른 색이고 상의의 깃, 고름, 끝동도 상의와 다른 색으로 조합하였고 무늬도 깃, 소매와 치마의 넓은 면에 그리거나 자수, 금박 등을 두드러지게 표현한 것이다. 1990년대 초부터 1990년대 후까지 착용되고 있는 것으로 가장 장식성이 강하여 사용된 색과 무늬의 양이 전례없이 많은 시기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결혼식 사진을 통해 한국여성의 예복에 대한 변화 양상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1943년부터 2000년까지의 결혼식 사진 344장을 대상으로 양가 어머니의 의복유형, 의복형태, 의복의 상하배색, 무늬정도, 의복색을 내용분석, 백분율, 시계열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식변화에 있어서 본 연구대상의 97%가 한복을 착용한 것으로 나타나 결혼식이라는 상황에 맞는 여성 예복의 유형은 한국 고유 의복인 한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형태, 상의와 하의의 배색, 무늬정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그에 따른 특징은 네 가지로 범주화하여 도식화할 수 있었다. 의복색은 결혼 당사자의 성에 따라 신랑 어머니는 녹색·파랑계열, 신부 어머니는 분홍·빨강계열의 의복을 착용하여 양가를 명확히 구분짓는 특징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상황과 복식변화의 관련성에서 의복의 특징 변화가 두드러졌던 시점은 60년대 후에서 70년대 초와 90년대 초로 한국의 사회적 사건과 경제적 상황이 복식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패션 트렌드를 제시하는 잡지나 광고의 자료를 연구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비교해 볼 때 변화의 경향은 같으나 변화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복의 형태와 장식방법(배색, 무늬의 사용과 표현방법)은 같았으나 실제 착용된 시점은 잡지에 나타난 것보다 늦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식의 양은 대체로 적게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실제 의생활에 있어서 착용자들이 제시된 패션 트렌드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자료의 선정에 있어서 다른 매체(신문, 잡지, 광고 등)의 자료와 비교해 볼 때 중년여성의 예복으로서의 한복은 잡지나 광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장식이 적은 점잖은 형태이며 치마길이기도 활동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연구자료로 실제의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실생활에서의 의복착용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40년대 이후 한복의 변화를 연대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으나 50년대의 자료가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충분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복형태의 변화는 70년 이후 서양복과 이중구조를 이루며 예복으로서의 화려함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특징은 시대별 한복의 범주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범주화의 특징은 그 당시의 유행과 시대정신을 반영하면서 의복이 하나의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대상의 시기가 1943년부터 2000년까지의 약 60년으로 대략 15년-20년 기간을 중심으로 유행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었으나 뚜렷한 주기나 주기 순환의 규칙은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신문이나 잡지 등에 소개된 한복과 실제 착용한 한복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었으며 특히, 중년 여성의 결혼식과 같은 격식차림 상황에서 착용한 것을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었으며 후속연구로는 남성복의 예복에 대한 연구와 예복에 있어서의 남성복과 여성복의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김민자 · 임원자 · 이은영 · 구미지 · 김윤희, 한국복식본천과 사회변천양상에 관한 연구—갑오경장 이후 서양패션의 수용과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7(2), 315—328, 1993.

유수경, 한국여성양장변천사, 일지사 서울, 306, 1991.

이주현 · 유혜경 · 김찬주 · 홍나영, 현대 한국인의 한복 착용: 아시아 전통 문화 양식의 전개과정에 관한 비교문화 연구(제 3보), 한국의류학회지, 25(1), 37—49, 2001.

전양진, 경제발전과 복식의 서구화와와의 관계연구 —한국여성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3(8), 1131—1138, 1999.

황선진, 여성잡지에 나타난 한복의 사회적 의미변화에 관한 연구, 복식, 18, 195—210, 1992.

김찬주 · 홍나영 · 유혜경 · 이주현, 20세기 초와 20세기 말의 전통한복 착용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9(4), 1—18, 2001.

진미희, 한복변천에 관한 연구 —1950년대 이후 여자 한복 중심으로—, 복식 15, 149—166, 1990.

Carman J. M.(1966), The Fate of Fashion Cycles in our Modern Society, Wills G. & Midgley D., Fashion Marketing, 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125—136, 1973.

Fehrman K. R. & Fehrman C., Color The Secret Influence, Prentice—Hall, Inc., 12, 2000.

Richardson, J. & Kroeber, A. L.(1940), Three Centuries of Women's Dress Fashions; a Quantitative Analysis, Wills G. & Midgley D., Fashion Marketing, 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47—105, 1973.